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양키스와 뉴욕 메츠가 4월 1일부터 스탠드에 팬이 참석하여 시즌을 시작한다고 발표**

**대규모 야외 스타디움의 프로 스포츠는 20%의 수용 인원으로 재개, 참석자들은 최근의 음성 시험 또는 예방 접종을 근거 제출, 시설은 엄격한 주 지침을 준수해야 해**

**실내 1,500명 이상 또는 야외 2,500명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는 지역 스포츠 시설 재개 가능, 수용 인원은 실내 10% 및 야외 20%로 제한**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야외 공연 예술 시설은 20% 수용 인원으로 재개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메이저 리그 야구(Major League Baseball , MLB) 팀인 뉴욕 메츠(New York Mets)와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가 4월 1일부터 스타디움에서 관중들과 함께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야외 경기장의 프로 스포츠는 20%의 수용 인원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입장 전에 최근의 음성 검사 결과 또는 완료된 일련의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안면 가리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건강 검진에 대한 엄격한 주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는 5월에 검사 및 예방 접종 입장 요건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공중 보건 상황이 계속 개선되면 5월 중순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시즌에는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과 씨티 필드(Citi Field)에서 예방 접종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규모 프로 스포츠 경기장을 재개하면서 주지사는 4월 1일부터 실내 1,500명 또는 야외 2,500명을 수용하는 소규모 지역 스포츠 시설도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수용 인원은 실내 10%와 실외 20%로 제한됩니다. 참가자는 입장 전에 최근의 음성 검사 결과 또는 완료된 일련의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안면 가리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건강 검진에 대한 엄격한 주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4월 1일부터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을 포함한 대형 야외 공연 예술 시설은 20%의 용량으로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사례가 줄어들면서 공중 보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시설 수용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참가자는 입장 전에

최근의 음성 검사 결과 또는 완료된 일련의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안면 가리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건강 검진에 대한 엄격한 주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홈 팀을 응원하는 것을 사랑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을 구현하면서 위대한 프로 스포츠 팀을 폐쇄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뉴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안전을 유지하는 한 양키스와 메츠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서 계속 회복하면서 사랑하는 팀들이 씨티 필드와 양키 스타디움을 다시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형 야외 스타디움에서 관중과 함께 프로 스포츠를 다시 재개하려면 각 스타디움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장소 및 행사 모두에 대한 뉴욕주 보건부 승인 획득
- 20%의 수용 인원 제한 시행
- 관중과 대민 행사 직원이 행사 전에 최근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 또는 예방 접종 증거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 모든 참석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체온 확인
-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한 좌석 배치 필수
- 모든 참석자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조
-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한 향상된 공기 여과, 환기 및 정화 기준 충족
- 모든 소매, 음식 서비스 및 운동 등 활동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

메츠의 소유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Steve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즌에 매우 기쁘며 씨티필드로 돌아오는 최고의 야구 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뉴욕이 회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에서의 **Cuomo** 주지사와 보건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계속 협력하여 앞으로 수용 인원 제한과 검사 요건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때에는 더 많은 팬이 안전하고 멋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양키스 관리 제너럴 파트너 **Hal Steinbren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키스 조직 전체, 특히 현장 선수들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팬들이 양키 스타디움에 가져다 주는 에너지에서 힘을 얻습니다. 팬들은 우리 고향을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매력을 지닌 장소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흥분은 매 시즌마다 우리가 세우는 챔피언쉽 목표의 촉매제입니다. 우리는 2021년에 다시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과 그 이후에도 가장 높은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20%의 수용 인원으로 시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지사의 결정에 감사하며 집무실의 성실한 업무와 지침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브롱크스에는 매우 특별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는 뉴욕주, **Bill de Blasio** 시장, 뉴욕시, 메이저 리그 야구 및 기타 보건 및 안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우리 시설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관행을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모든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 스타디움 및 경기장에서 2월 23일부터 제한된 관중을 대상으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4월 1일부터 프로 스포츠 행사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주최할 수 있는 대형 야외 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 한도가 10%에서 20%로 증가한 것을 반영합니다.

3월 3일에 Cuomo 주지사는 [소규모 공연 예술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4월 2일부터 행사 시설에서 33%의 수용 인원으로 실내에서 최대 100명, 야외에서 최대 200명까지 수용하여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입장 전에 최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실내에서 최대 150명, 실외에서는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대형 야외 공연 예술 센터를 다시 열어 콘서트 및 기타 주요 공연을 위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총 수용 인원의 20%를 허용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